

# 목포시, 덴마크와 교류로 글로벌 수산식품도시로 도약

### 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장·현지 해양수산 스타트업 기업 대표 방문해 두 센터간 해조류 연구 협업모델 구축에 대해 논의

목포시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전국 제 1의 수산식품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7일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박홍률)가 덴마크와 해조류 연구 및 사업 개발(R&D)에 대해 활발히 교류협력하며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속도를 냈다.

이날 덴마크 이노베이션 센터장(디테 린더 바이씨)과 현지 해양수산 스타트업 기업 대표 등이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갖고 두 센터 간 해조류 연구 협업모델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으로 우리나라와 덴마크 양국간 대학, 연구기관 및 R&D기반 기업들 간의 연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고등교육 분야

에서 네트워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목포시와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지난해부터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과 9월에는 화상으로 한-덴 해조류 교류협력간담회를 가졌다. 화상회의에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한국 해조류 산업 현황과 센터의 R&D 성과를 소개하고 김을 포함한 전남 해조류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어 10월에는 덴마크 대사관 초청으로 덴마크국립공과대학 식품연구소와 북유럽 해조류 컨퍼런스에 참석해 전남 해조류 산업과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홍보하고 다양한 김 관련제품을 전시했으며 현지 산·학·연 분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 등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

김 등 해조류 산업의 미래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처럼 목포시는 수산식품수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시는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양수산부 수산식품클러스터 1호 사업인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중이다.

사업비 1,150억원을 투입해 대양산단에 부지 28,133㎡, 연면적 46,616㎡ 지상5층 규모로 임대형 가공공장, 마른김 거래소, 연구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출지원 시설 등을 구축함으로써 수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수산 식품 기업 36개 신규 투자 유치로 2,154명 일자리 창출, 1,97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예상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 전문기관



으로 지정 받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수산식품 연구·개발·지원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김산업을 목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운영 △수산식품 김 박람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특화단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고부가가치 김 제품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 간편식품, 세대별 맞춤형 수산식품, 수출전략식품 등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 및 가공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함평군-육군보병학교, 지역 상생발전 위해 '머리 맞대'

### 함평군-육군보병학교, 지역 상생발전 위해 '머리 맞대'



함평군과 육군보병학교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함평군은 "육군보병학교와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7일 장성 상무대에서 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박원호

육군보병학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간담회를 통해 전입장려금 및 청년 지원사업, 함평군립미술관 전시 및 문화강좌, 주요 관광지 등을 안내했다.

또, 함평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농촌일손돕기, 제25회 나비대축제 개막식 군악대 지원 등을 육군보병학교에 요청했다.

박원호 육군보병학교장은 "연간 4만여 명의 훈련장교들이 함평의 관광자원과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국토 방위를 위해 힘쓰시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육군보병학교와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준기자

## 무안군,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 IT/3D 취업·창업 기술 양성 교육사업 선정으로 도비 2,700만 원 확보

무안군은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2023년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에 신청한 IT/3D 취업·창업 기술 양성 교육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도비 2,7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무안군이 선정된 IT/3D 취업·창업 기술 양성 교육사업은 전남 서남권에서 유일하게 무안군에 자리 잡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관련 전문 인재(강사, 취·창업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농업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무안군은 이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IT/3D 취업·창업 기술 양성 교육사업은 2023년 3월~6월 운영위원회 조직구성을 시작으로 교재와 강사를 선정 후 참여자를 모집하여 6월~7월 실무 위주의 교육 운영을 통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이후 7월~12월에는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암군, '한우산업 어려움 해결 모색' 간담 개최

영암군은 지난 6일 영암군청 군정홍보실에서 (사)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 임원진과 최근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와 유호진 초대회장을 비롯한 김동구 회장, 한지용, 서성팔 부회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육두수 증가, 사료값 상승,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 군수는 "위기에 처한 한우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크게 적체되고 있는 한우 부산물 활용 및 순환농법 모색 등을 통해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2022년 280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사료구매자금 28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상반기 사업분 207억원을 전남도에 신청했다.

아울러, 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차지원 사업의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 주말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신안군민 초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말교육프로그램 '한지랑, 나랑'을 운영한다.

'한지랑, 나랑' 프로그램은 김수진 작가와

함께 자연 친화적인 다크이 제작과정을 체험하고 분재정원에 있는 식물재료를 통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소개 제작한 후 '나만의' 이야기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토요일 5회차 초등학생 대상 10명, 일요일

반 5회차 성인 대상 10명으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재료는 미술관에서 제공한다.

이외 앞으로 진행할 교육프로그램으로 5~6월 <마음의 평화'보태니컬아트', 7~8월 <우리가 그리는'신안풍경'을 작가와 함께 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